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호 편집인기
(등록번호 제 253호)

제 312 호
<주간>
1981년 3월 12일
매주 목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등록 1960년 4월 1일
등록번호 5 천원

THE O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외대, 종합대학교로 발전!



초대 총장에 김동선박사

3월 2일 취임식 거행

3월 1일 10시 본교 강당에서 김동선박사의 축강
취임식이 이규호 문교부장관, 김상협 고려총장,
최 전율미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내외빈과 주민
외교사절 고종석 박생이 참석해 기념되었다.

초대총장으로 취임한 김동선박사는 지난 80년 9월
이후 본대학의 학장서로 재직하면서 중한미학술과
과 함께 종장으로 일정하였다.

- <학력>
- ▲ 1954 고려대학교 영문과 졸업
- ▲ 1959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 1963 영국 에динバラ대학 미술대학원에서 연
수(碩士) (경계·경부·초경)
- ▲ 1975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문학 졸업
- ▲ 1978 영국 캠브리지대학 연구교수
- ▲ 198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대학사
- ▲ 1981 외미조교수
- ▲ 1985 고려대학교 갑사
- ▲ 1985 한국여성언론학회 상임이사
- ▲ 1986 외미교수
- ▲ 1974 외미교수
- ▲ 1980 외미학부 및 통역대학원장을 겸임
- ▲ 1981 외미조교수

2천년대

최고 교육기관으로 발돋움

<교육이념> 본교의 교육 이념은 자유와 민주주의상
에 입각하여 학생 각 개인의 개성 확장과 지도적인
인격을 도모하여 강사 국기와 사회복지에 공헌할수있
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 이념을 구현하고자 인문, 사회및 자연과학과
범한 교양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본 대학의 특성인
외국어를 토대로 각각 해방국가의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함으로써 국제 문화 교류 및
발전에 기여케 한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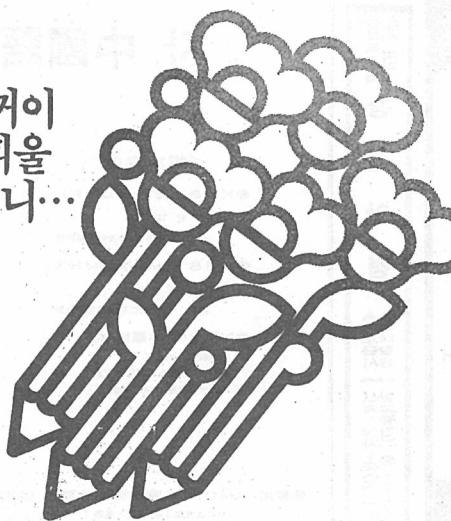
1954년 개교 이래 26개정상을 거쳐오면서, 외대는 이
제 6개대학 44개학과에 모집정원 3,180명의 종합대
학교로 성장했다. 서양어학과, 통일학과, 대학의 18개외
국어학과를 비롯하여 인문대학의 4개학과, 상경대학의
3개학과, 사법대학과 문과대학의 각 4개학과가 그
것이며 이외에 윤인대학과 외국어대학부 9개학과 상경
학부 2개학과까지 포함하여 44개학과에 이르며 81년도 입학정원은 3,180명이라는 숫자에 이
른다.

1981학년부터는 수학·물리·화학과를 포함하는 물리
과학의 신설로 영광대학·종합대학(综合大學)으로
승격한 「외대」는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大學) 내 영어와 이주지역 연구
과, 정부외교학과를 설치하여 7개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기타 부속대학원·원서대학원·교육대학원이
별립되어 있다. 지난 26년간 65,000여명의 학생들을
배출한 「외대」는 현재 외인교수 40여명을 포함하여
200여명의 저명한 교수진을 확보하고자 하며 앞으로
5년이내로 걸쳐 70년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자
한다. 당시 15년 후에는 이곳에서 3천명 규모의 종합
캠퍼스가 자리를 굳하게 될 것이다.

네대학장·총장
1954년 초대 학장 안효상
1955년 제 2 대학장 박종우
1960년 제 3 대학장 한준희
1961년 제 4 대학장 권관희
1962년 제 5 대학장 김관희
1966년 제 6 대학장 박술관
1977년 제 7 대학장 최완복
1980년 제 8 대학장 조경철
1980년 제 9 대학장 김동선
1981년 총대 총장 김동선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기꺼이
젊음을 꽂피울
토양이 되어주리나...



자·

이제 가자.

아름다운 것들은 더욱 아름답게,
장하고 자랑스런 것들은
더한층 강하고 자랑스럽게 키워나갈
소중한 꿈들을 한아름씩 안고서—.

지난날의 들타한 견질들 일랑 훌훌 벗어버리고
세차게 불어울을 앞날의 어려움도 기운차게 박차며
왕성한 젊음을 토양삼아 꿈들이 열매맺을
그날을 향하여 다같이 나아가자.

출범의 고동은 이미 울렸다.

기나긴 황해를 위한 뜻도 이미 울려졌다.

젊음의 대열이 험진하는 그 운항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나침반이 될 것이며

풀없는 비상(飛翔)을 위한

또하나의 날개가 되어주리니.

자·

이제 가자.

아름다운 것들은 더욱 아름답게,
장하고 자랑스런 것들은
더한층 강하고 자랑스럽게 키워나갈
소중한 꿈들을 한아름씩 안고서—.

대우가족

초대 총장 취임

축

